

여전히 이것은 노동하는 인간의 문제

강경애의 『인간문제』와 이서수의 『젊은 근희의 행진』* 사이,
'노동소설'의 계보와 주체를 연장하기
*이하 『젊은 근희』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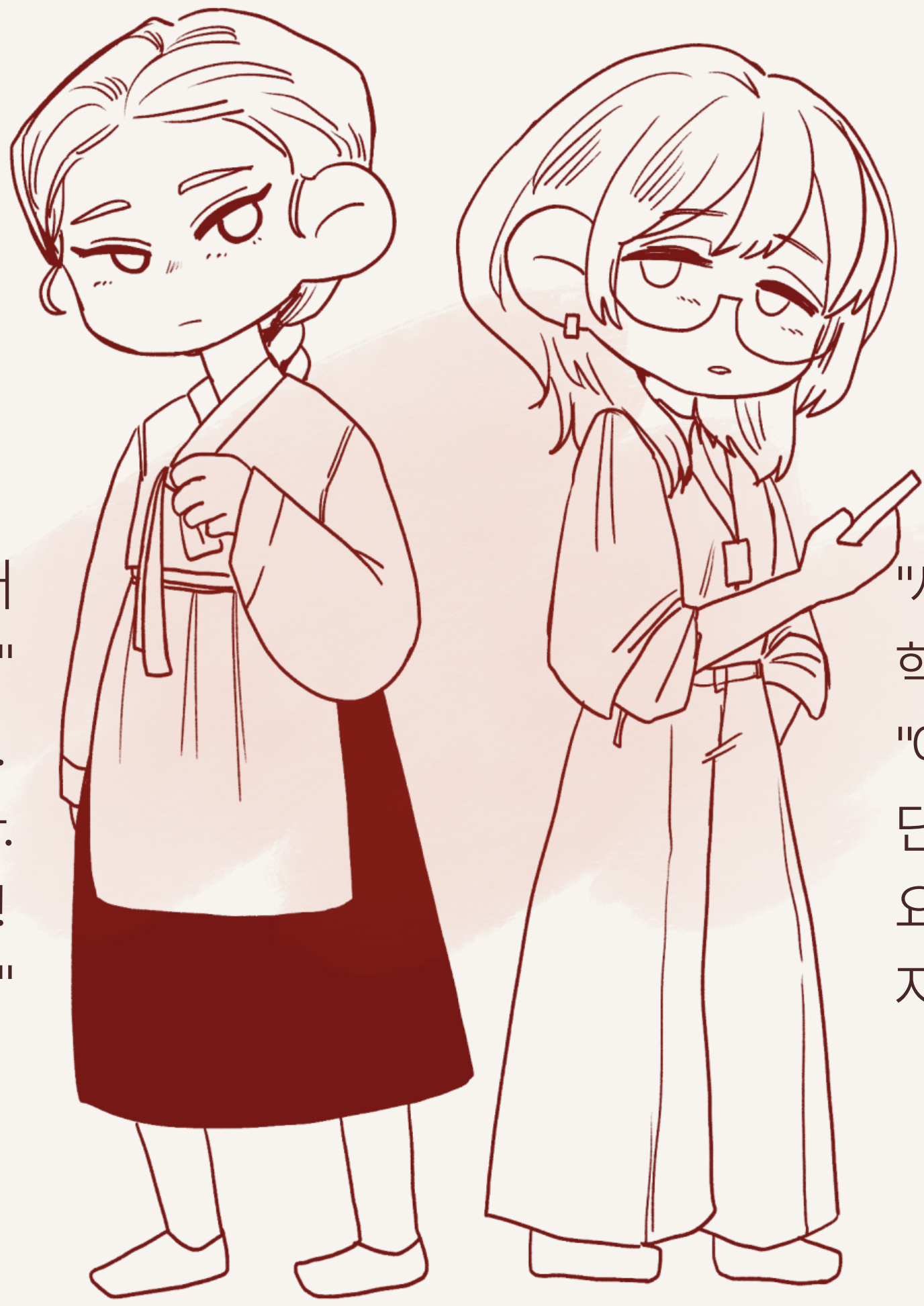
2020년대, 노동소설이라는 장르는 소멸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그것은 이전 시기 '노동소설' 개념을 규정한 **계급의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

- 통념에 의거한 의미: 개별의 노동자가 자신이 무산계급에 속한 노동자로서 유산계급과 대립된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계급인 모든 노동자와 단결하여 집단적인 주체로서 노동 해방을 이뤄내어야 한다는 자각을 갖고 투쟁을 통해 해방을 이뤄내어야 하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사명을 의식하는 것

계급의식이 노동자 정체성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하는 세계인식이라면,
2020년대의 노동자 정체성이 어떤 새로운 계급의식을 만들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장르로서의 노동소설이 가진 실천적 의지를 잇고 그 계보를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프롤레타리아 선비의 시대

"하루라도 속히 천여명의 여공들이 한몸이 되어
우선 경제적 이익과 인격적 대우를 목표로 항쟁하도록 인도하여야"
"이 인간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 천만 년을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구일까?"



※ 『인간문제』의 선비와 『젊은 근희의 행진』에 수록된
『미조의 시대』의 미조를 교차하여 소재목을 붙여 보았다.

프레카리아트 미조의 문제

"새로울 것 없는 말이네,
혁명은 끝났고 착취는 계속된다니."
"이젠 그런 시대야. 기념비를 세우는 게 촌스러워진 시대.
단 하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요리조리 상황을 살피면서 끼니를 이어가는,
자기몸 하나 누일 곳을 확장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그림 해민

'프롤레타리아'의 세계인식

- 맑스의 노동해방론 → 프롤레타리아의 존재론과 밀착
- 노동자 민중이라는 집합적 주체를 강조,
계급 내부의 동일성 + 진보적 역사관 → 강한 행위성
- 젠더·인종, 장애 등의 위계를 비가시화하거나
계급 및 역사를 이분법적,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등 맹점

강경애의 『인간문제』와 노동자 정체성

- 하층민 여성이 겪는 폭력의 교차적 성질 이해,
도식에 매몰되지 않는 구체성 획득
- 그럼에도 투쟁적 주체성, 투쟁-해방의 선형적 세계관 잔존
→ 노동자 주체성 강조, 연대와 변혁의 동력 제공
그러나, 여성 노동자 인물의 행위성을 도로 축소시킴

'프레카리아트'의 세계인식

- 불안정(percario) + 프롤레타리아(prolerariat)
- 신자유주의적 유연성과 불안정성
→ 노동 시민권* 박탈
- 계급 내부 동일성 ↓ 대안 상상 불가
→ 탈정치화, 혁명의 상상력 부재

* 노동시장, 고용, 직무, 노동안전,
소득, 일에 기반을 둔 정체성 등

이서수의 『젊은 근희』와 노동자 정체성

- 노동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 역사적 대안 상상, 강한 행위성 X
→ 유산계급 비가시화, 혁명적 상상력 부재
- 프레카리아트의 상호 물이해를 면밀하게 포착
+ 동일성에 기반한 이해 대신 비동일성을 수용하는 공존 강조
→ 불안정성 자체를 계급의 기반으로 삼음

노동하는
인간으로
세계안에
존재하기

그럼에도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알고, 자본주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살 만한 삶을 모색하려 애쓰는

참고문헌

강경애, 『인간문제』, 최원식 편집, 문학과지성사, 2006.
이서수, 『젊은 근희의 행진』, 은행나무, 2023.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 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25, 311-343.

정교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문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최진희, 「오스트롭스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전범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2, 한국 러시아어문학회, 2021, 137-166.